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 본문

요 14:25-31

■ 시작 찬송가

191, 197, 325장
(통 427, 178, 359장)

■ 헌금 찬송가

370, 408, 432장
(통 455, 466, 462장)

▶ 평안

1. 평안의 근원

- 1) 하나님
(빌 4:7)
- 2) 그리스도
(요 14:17)
- 3) 성령
(갈 5:22)
- 4) 영의 생각
(롬 8:6)
- 5) 복음
(엡 6:15)
- 6) 의
(사 32:17)

2. 평안의 종류

- 1) 국가적 평화
(왕상 4:24)
- 2) 가정의 화평
(고전 7:15)
- 3) 개인의 평안
(눅 8:48)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땅히 인생에 대해 가져야 할 걱정, 근심이 아닌,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성경은 우리 안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하여 말합니다. ‘쉐마’의 핵심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불평의 씨앗을 심고, 불만의 씨앗을 심습니다. 더 나아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의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여 우리 마음의 정원을 전부다 아주 안 좋은 식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다음 주는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평안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구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보내면 평안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상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서있던 다곤 신상은 밤마다 쓰러지고, 아침 블레셋 제사장들은 깨어진 다곤 신상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신 곳에는, 우상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삼상 5:2-4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성경은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종들을 부르신 다음 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창 26: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독교 신앙을 단순하게 비움의 영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움의 영성 이전에 채움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가짜 주인인 근심과 두려움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눅 10: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 삶 가운데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두려움은 쌍을 이루면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심'이라는 말의 뜻은 바깥의 문제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내 안의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티라소인데, '동요한다', '파도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동요의 반대말입니다. 바깥의 파도가 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바다가 아무리 흉흉하고, 파도가 칠지라도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 8: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로 신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예민하며 또한 동시에 담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감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하되 근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동요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요하지 않는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는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사 61:3 무릇 사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의 한마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안보와 통일을 위하여
2.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3. 탈북자, 이주노동자, 미혼모, 소년소녀가장을 위하여
4.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들을 위하여
5.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선교지를 위하여
6.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 등 국내·기관 선교를 위하여
7.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8.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 근심

1. 근심의 종류

- 1) 일시적인 근심
(요 16:6, 20-22)
- 2) 끊임없는 근심
(롬 9:2)
- 3)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후 7:8-11)
- 4) 세상 근심
(고후 7:10)
- 5) 위선자의 근심
(마 14:9)

2. 근심의 원인

- 1) 죄
(시 38:18, 잠 1:27-30)
- 2) 질병
(욥 2:11-13)
- 3) 우상숭배
(시 16:4)
- 4) 고통과 고난
(시 25:17, 시 31:9)
- 5)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
(시 30:7)
- 6) 비방
(시 69:20)
- 7) 심판과 멸망
(사 19:10, 애 2:5, 겔 23:33)
- 8) 재물
(마 19:22)
- 9) 지식
(전 1:18)